

Korean Supplementary Text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환경독성보건학자의 반성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환경보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환경엔지오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2월 21일 연 2015년 환경보건시민대회에서 환경시민상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영국원정 항의단 3명과 부산-서울 자전거 항의 행동을 이끈 안성우 씨에게 주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사건 전모가 드러난 지 4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규모를 잘 모르는 것은 물론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한 가해 기업이 사과논커녕 피해 보상조차 미적거리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가습기 살균제 집단 사망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의사, 역학전문가뿐만 아니라 환경독성학자도 일정 역할을 했다. 독성학자들이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건을 미리, 또는 사건의 규모가 커지기 전 조기에 임산부와 아기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했던 폐 손상의 원인을 알아차릴 수도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8백만 명 가량 된다고 하니 독성학자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도 분명 여럿 있었을 터이다. 이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살균제 제품에 들어간 PHMG, PGH 등의 독성화학물질을 폐로 흡입할 경우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해보았더라면 이 재앙을 막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이름으로 2014년 12월 펴낸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의 서문에서 편집 책임을 맡았던 나는 “기업의 안일함과 정책·제도적 미비가 빚어낸 생활환경제품 재앙”이라고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 우리가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백서까지 내는 것은 과거의 아픈 경험을 낱알이 드러내 이를 반성함으로써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위함일 터이다.

환경독성보건학자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주변에, 생활환경제품 가운데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제품이 없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볼 의무가 있다. 일반 시민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위험이 전문가의 눈에는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Environmental Health and Toxicology

특히 환경독성보건학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각종 화학물질과 제품에 들어간 물질들이 과연 안전한지를 늘 의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가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 전에 일부 환경보건학자들이 먼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직접 조사를 벌이고 보고서까지 펴냈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질 경우 환경독성보건학자들도 대학과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족을 잃은 고통에 힘들어하고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피해 시민과 현장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Ahn Jong-Ju

Korean Social Policy Institute